

IMF시대 충남농업의 전망과 정책과제

권 용 대
(權容大)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I. 서 언
- II. IMF 지원이후 농업여건의 변화와 전망
- III. IMF 관리체제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
- IV. 충남 농정의 대응전략
- V. 결 언

I. 서 언

WTO체제 출범이후 우리의 산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채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적자에 시달려 오다가 1997년 12월 IMF의 국제금융지원이라는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IMF의 국제금융이란 회원국이 국제수지악화 등에 따른 외환 부족시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제금융을 지원받는 국가는 경제전분야에 걸쳐 IMF가 요구하는 강도높은 이행조건을 수행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IMF의 요구조건을 보면 긴축재정, 고환율, 고금리, 물가안정 등 구조조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조건은 향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UR농산물협상 타결이후 우리 농업은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 생산기반 정비, 시장지향적 제도개선 등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를 맞이하여 환율상승과 고금리로 농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긴축재정에 따라 농업 투융자 사업의 규모와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분야도 당면한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시대일수록 기초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 농업구조로 전환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IMF 경제난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따른 농업여건의 변화를 전망하고 우리 지역의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본 후 이에 대응한 농정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IMF지원이후 농업여건의 변화와 전망

1. 농업여건의 시나리오별 전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 투융자 사업은 농업내부의 각 부문과 상호 관련되어 있고 장기적인 구조개선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최근의 IMF 경제위기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은 장단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구제금융이후 농업여건의 변화를 전망해 보면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가상할 수 있다.

먼저 낙관적인 전망을 해보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1973년도 오일쇼크와 유사한 외환 및 금융위기 현상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실업, 고금리 등의 변수들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물과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점차 회복되고 자본시장의 개방화, 환율 자율화로 외환위기가 해소되면서 정상적인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것이다.

농업분야도 환율상승, 고금리 때문에 경영생산

비의 증가와 농산물 수요침체 현상이 나타나 단기적으로 농가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농업생산이 감소하면서 농가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유류값, 사료값 절약을 위한 농업 투입재의 국산화 노력, 도시 유희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농촌 임금의 상승억제, 환율상승으로 고부가가치형 농산물의 개발과 수출농업의 육성 등 구조 조정기를 거쳐 농업 경쟁력 향상의 도약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관적인 전망을 해보면 국가 경제는 저성장,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총수요의 감소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생활수준이 저하되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며 만성적인 고실업 사태로 사회적 정치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국민들은 경제회복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도 다수의 축산, 시설원예농이 도산하고 한계농가가 영농을 포기하면서 농산물이 일시에 방매되어 시장출하량이 증가하여도 수요침체로 공급초과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은 폭락한다. 농업생산비의 증가, 고금리 지속으로 차입 원리금이 상환불능 상태인 농가가 속출하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농가수지가 악화되어 폐농이 증가하는 반면에 생산기반이 붕괴된 농산물을 대체하여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차지하게 된다.

2. 품목별 농업전망

가. 곡물부문

쌀, 맥류, 옥수수, 잡곡 등 국산 농자재의 투입비중이 높고 수요가 안정적인 식량작물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작물 생산량은 1990년에 700만톤에서 1997년에는 600만톤으로 연평균 2.2%씩 감소하여 왔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사료용 소비량이 1998년도에는 10% 정도 줄어든 900만톤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1998년도에는 식량자급률이 29%대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환율상승으로 밀, 콩, 옥수수 등 수입곡물의 국내가격이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입 농산물을 원자재로 이용하는 식료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의 경우 소비량이 1997년도에 102.5kg/1인까지 감소해 왔으나 경기침체와 소득감소에 따라 수요가 다시 증가하여 1998년도에는 104kg/1인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량은 1996~97년 산의 연이은 풍작에 힘입어 1998년도 쌀 자급률은 105%에 달할 것이나 금년도에 엘리노 현상 등 기상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할 시에는 쌀의 수급불안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나. 시설원예·과수부문

농림업에서 차지하는 시설원예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1998년도에 환율상승으로 10a당 경영비가 30% 정도 상승할 것이며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 전반기에는 난방비가 적게드는 무가온 보온재배 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수급 및 가격 불안정 현상이 심화될 것이나 원화의 엔화에 대한 환율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일본시장에서 미국, 뉴질랜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오이, 토마토, 딸기는 일본의 겨울철 가격 상승기에 맞추어 수출할 경우 국내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가격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수산업은 1990~96년 기간동안 해마다 3.6%씩 성장하여 왔으나 최근의 환율상승으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투입비용의 증가로 3~5%의 생산비 상승요인이 있고 수요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다. 축산부문

축산업은 1990~96년동안 연평균 5.6%씩 성장하여 농림업 비중의 23.9%에 달하는 주요 산업이다. 육류소비량은 1996년도에 총 134만톤이며 그 중에서 쇠고기가 32만3천톤, 돼지고기가 73만4천톤, 닭고기가 28만4천톤인데 자급률은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95%인 반면에 쇠고기는 54%정도에 그치고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사료 가격의 인상으로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한계 축산농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도에는 한우 우 사육두수가 4.1~8.4% 감소하여 253~265만두가 되고 돼지 사육두수는 11~17% 감소한 590~630만두, 닭사육 수는 17%가 줄어든 8천만마리 내

외가 될 전망이다. 축산물의 산지가격은 경영여건 악화로 일시에 출하물량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나 사육두수의 감소, 수입육 가격의 상승, 출하량 감소 등으로 1998년도 하반기에는 10%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7월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수입 자유화 되었으나 환율상승으로 축산물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이가 축소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며 돼지고기는 수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III. IMF 관리체제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

1. 긴축재정과 농업투융자 사업의 재조정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재정전반에 걸쳐 강도높은 긴축을 요구해와 농업부문도 예산삭감과 사업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충

남의 금년도 농업부문 예산과 내년도에 시행되는 제2차 농어촌발전사업의 축소와 시기조정이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1998년 농림예산은 전년대보다 6.9% 증가한 8조5,276억원 이었으나 긴축재정 운영으로 이보다 10~15% 감축되어 투융자사업의 규모도 5~10% 감축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림사업의 수가 134개에서 99개로 통합되어 자금 지원에 신축성이 높아지고, 과수·채소·특작의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되는 등 자금배분에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가세제 혜택의 축소로 농업용 유류에 대해 부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을 철회할 경우 농산물의 생산원가가

〈표 1〉 충남의 농업부문 융자금 지원현황(1994년~1997년)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융자실적
정예농수산인력 육성	후계자 5,101명, 전업농 6,690명	2,631	1,915
영농규모화	4,688ha	1,867	1,814
농업기계화	121,246대	5,020	2,632
시설현대화	원예, 축산, 임업시설	7,999	3,534
유통·가공사업	미곡처리장 28개소, 집하장 718개소 포장센터 15개소	1,792	356
소득원개발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공단지 6, 관광단지 47 정주생활권개발, 농촌자녀 학자금	15,979	13,703
기타사업	생산기반 조성, 기술개발, 산촌·어촌개발	12,541	504
합 계		47,829	24,458

자료 : 충청남도,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 1997. 11.

30%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농가는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으로 연간 2천8백억원 안팎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데 면세조치 철회로 각종 시설재배 채소의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금융자금의 축소와 금리상승에 따라 농가부채의 상환부담이 확대되고 특히 축산농, 유리온실농(시설원예, 화훼) 등 시설자금의 차입비중이 큰 전업농은 경영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에서 보면 충남은 1994년에서 1997년까지 투입된 총 47,829억원의 농림사업 투융자 중에서 24,458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금리가 년 1% 상승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연간 24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충남의 농가호당 13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됨을 의미한다.

2. 환율 자유화와 농자재 비용의 증가

환율급등으로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농자재의 가격 상승요인이 대단히 크다.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공급마저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표 2>에서 환율상승에 의한 가격인상요인은 유류값 28~45%, 농약류 18~30%, 농기계 12~20%에 이른다. 그러나 실업난으로 임금이 하락하고, 국산원료로의 대체 등이 이루어지면서 상쇄효과가 발생하여 농업자재 가격은 14~20%, 배합사료 가격은 14~21%, 농기계 가격은 9~16% 상승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일시적인 환율상승에 편승한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는 환율이 안정되면 인상된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매점매석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농업자재의 가격동향에 대한 모니터와 감독이 필요하다.

<표 2> 환율상승에 의한 농업자재 가격상승 요인

품 목	가격상승률계수	가격상승요인(%)
연료용 유류	0.78	27.8~44.7
화학비료류	0.46	16.0~26.4
농약류	0.52	18.1~29.8
플라스틱 제품류	0.35	12.2~20.1
배합사료	0.51	19.3~31.1
농기계	0.34	11.8~19.5

주 : 1) 가격상승률 계수는 환율 1%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률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함.

2) 1998년 환율은 1,200~1,400원/\$을 가정하였고 1997년초 환율인 870원/\$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년 농업전망과 정책과제, 1998. 1. 19.

한편 농업 투입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산물 가격에도 상당한 상승요인이 나타나는데, <표 3>을 보면 수입곡물 의존이 높은 축산물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요인이 6~17%, 경종작물의 경우 2~5%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농산물 수요가 감퇴하고, 축산물은 단기적으로 비육, 양돈, 양계농가의 시장 방패로 실제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낮아져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폭은 이보다 둔화될 것이다.

<표 3> 환율상승과 농산물 가격 상승요인

농 산 물	가격 상승률계수	가격 상승요인(%)
쌀	0.04	1.4~ 2.3
채 소 류	0.06	2.1~ 3.4
과 일 류	0.08	2.8~ 4.6
화 훼 류	0.09	3.1~ 5.2
낙 농	0.25	8.7~14.3
육 우	0.18	6.3~10.3
양 돈	0.28	9.7~16.0
양 계	0.29	10.1~16.6

주 : 1) 가격상승률 계수는 1%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상승률로서 산업연관분석에 의함.

2) 1998년 환율은 1,200~1,400원/\$을 가정하였고 1997년초 환율인 870원/\$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998년 농업전망과 정책과제, 1998. 1. 19.

주요 시설원예작물의 경영비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의 1달러당 890원선에서 1천6백원으로 오른 것을 전제로 할 때 20~40%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농산물값이 20%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아 수확재배나 보온덮개 등으로 난방비를 줄여나가는 절약형 농업을 적극 도입해야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환율 현상이 장기화 되면 수입 원료의 비중이 높은 유류가격과 사료가격

의 인상으로 시설원예, 축산물의 생산비가 증가하고 농업소득의 감소로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축산업은 사료 구입난으로 인하여 경영 압박요인이 지속되면 사육기반이 붕괴되어 장기적으로 축산물의 소비는 수입 축산물로 대체되어 수입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수도 있다.

반면에 IMF구제 금융에 따른 환율상승의 여파로 수입농산물 시장이 축소되면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일례

로서 금년 1월중에 급작스런 환율상승으로 수입 과일류중 네이블 오렌지가 약 50% 가량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1/3의 가량 감소한 2백여톤에 그치고 있다. 농산물 수입업체들은 수입을 일시 중단하고 재고량의 판매에 치중하고 있으나 국내 과일류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져 적자판매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국산 농자재의 사용률이 높은 농산물은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나 이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들과의 통상마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저성장 기조와 농업성장의 둔화

우리나라 농업은 1988~9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으나 1993년을 기점으로 해서 1996년까지 3%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농업 투융자사업이 이 기간동안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에 쌀이 대풍작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신청 이후 국민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하락,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국내 농산물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농산물의 수익성 저하로 영농규모와 재배면적이 축소될 것이다.

〈표 4〉 농업성장률 변동 추이

(단위 : 연평균 %)

구 분	1981~88	1988~93	1993~95	1996	1997(추정)
농업성장률	3.8	-0.7	3.2	3.3	0.5

자료 :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표 5〉에서 쌀의 경우 1998년에는 작황주기 요인을 고려하면 1997년보다 20kg내외 감소한 500kg 정도가 되지만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475kg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율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축산물과 시설채소의 수요와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총생산은 3.5~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 부문별 성장률은 작물의 경우 -3.4~-3.6%, 축산업의 경우 -5.1~-7.9%가 될 전망이다.

축산물 가격은 사료값 부담으로 상승요인이 크지만, 도축이 증가하고 수요가 위축되어 가격은

강보합세를 나타내는 데에 그칠 것이고 쌀과 노지 채소는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2%내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농산물 가격(실질가격 기준)은 -0.3~1.9%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가가치 총액은 3.5~3.9% 감소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0.3~1.9% 변동하므로 농업소득은 2.0%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외소득과 각종 이전소득은 좀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금리부담이 증가하는 등 농가경제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1998년 농업성장률 전망

구 분	96농업부가가치액 (10억, 90년불변)	성 장 륜 (%)	
		1996~97(추정)	1997~98(전망)
농 업 전 체	15,023	0.5	-3.5 ~ -3.9
작 물	12,903	0.7	-3.4 ~ -3.6
(쌀)	(5,377)	(2.4)	(-6.7 ~ -7.0)
축 산 업	1,855	-2.6	-5.1 ~ -7.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년 농업전망과 정책과제, 1998. 1. 19.

한편 1990년 이후 농지 전용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농지면적이 연평균 2만6천ha씩 감소하였으나, 1998년에는 비농업 부문의 성장감퇴, 재정 긴축으로 인한 공공용지 수요감소, 그리고 소비위축으로 인한 주택수요 정체 등으로 전용면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취업자의 감소속도가 둔화되면서 농지의 휴폐경 면적도 안정되

어 경지이용면적은 210만ha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경지면적은 〈표 6〉에서와 같이 1991년 이래 0.9%씩 감소하여 1997년에는 264,225ha로 추정되고 있으나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정책과 농지의 전용 억제정책으로 1998년부터는 감소율이 0.3~0.7%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충남의 농지면적 변화

(단위 : ha)

구 분	1991	1995	1996	1997 (추정)	연 평 균 변 화 율 (%)	
					1991~96	1997~98
농 지 면 적	279,084	272,377	266,625	264,225	-0.9	-0.3~-0.7
경 지 이 용 면 적	289,001	275,399	270,345	266,830	-1.3	-0.5~ 0.4

주 : 1997~98년 변화율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 농림통계연보·충남통계연보, 각 연도.

4. 실업을 증가와 농가인구의 감소세 둔화

농림업 취업자의 연평균 감소율은 1980년대에 3.6%였으나, 1990~97년 사이에는 5.1%로 높아지고, 3ha 이상의 대농가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농가경영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98년에는 IMF 체제로 비농업 부문에서 실업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농림업취업자 감소율이 자연감소를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

망된다. 농업노임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1990~97년 사이에 연평균 5.3%씩 상승하였으나 1998년에는 농업취업자 감소가 둔화되어 0~3% 하락할 것이다. 충남의 농가인구도 최근 수년동안 연간 5.0% 감소하여 1997년도에 572천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1998년부터 귀농인구의 증가로 농

가인구의 감소율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도시지역의 실업률 증가에 따른 농촌정착 및 귀농인 증가로 재취업 농가가 증가하면서 농가인구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농촌지역에는 오히려 비농업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표 7〉 충남 농업인력의 변화

(단위 : 천명)

구 분	1991	1995	1996	1997 (추정)	연 평균 변화율(%)	
					1991~96	1997~98
농림업취업자	415	392	361	345	-4.5	-0.3~-1.2
농가인구	702	642	602	572	-5.0	-2.8~0.1

주 : 1997~1998년의 평균 변화율은 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를 이용함.

자료 : 충남통계연보, 각 연도.

IV. 충남 농정의 대응전략

1. 품목별 단기대책

가. 축 산

외환위기 및 IMF 경제난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는 축산농가로 사료값의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가능한한 빠른 기간내에 사료 수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는 사료급여량의 70~80%를 수입사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료곡물도입의 차질로 축산농가의 사료확보가 어려워지고 1997년 12월중에 사료값은 평균 34.4%올라 도내 축산농가의 하루 추가부담액이 6억6천1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종래에는 사료구입시 외상거래가 가능했으나

배합사료 업체에서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자금 확보난으로 사육포기에 따른 방패로 가축시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금년 1월부터 사료구입을 위한 경영비 용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료값 추가 부담액을 6억6천1백만원으로 보고 90일분 6억원 규모를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용자해주는데 이자를 6.5% 보전해주기 때문에 농가에 연리 5%로 용자하고 있다. 이밖에 사료값 절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에 15억원, 톱밥발효 사료기(1백대) 보급에 15억9천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3천8백97기)에 3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대체사료(조사료, 볏짚, 톱밥 발효사료)확보사업을 확대하고 현재의 사료원료 신용장(L/C)개설 상황

및 국내 원료재고량으로 미루어 중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우선 2~3개월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단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단체, 사료업체,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의하여 국내산 자급사료의 조달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축산물의 수매 비축량을 늘려 시장 출하량을 조절하고 장래의 수급불

균형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과 같은 차원에서 긴급자금의 조기지원과 각종 조세의 감면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시설원에

시설원예농가는 난방연료(경유)비 78%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도내 가온시설농가(3천1백18가구 1천8ha)는 평균 35% 안팎의 생산비 추가부

〈표 8〉 충남의 긴급농업자금 지원현황

구 분			지 원 규 모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총액	보조	융자	자담		
합 계			1,064	67	960	37		- 98년 70.4억, 99~2000년 각 30.2억 지원 - 이차보전을 65%(총이자율 11.5%, 농어가 부담 5%)를 지원하며 이자율은 금리여건에 따라 조정
축 산 농 가	단 기	경 영 비 (사료구입비)	600	-	600	-	65%이차보전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일반예산 절감분에서 이차보전비(1차년 39억원, 2·3차년 각 19.5억원)
	중 장 기	사 료 비 절 감 사 업	34	17	-	17	보조 50%, 자담 50%	- 축산발전기금 보조 9.3억원 - 도비 2.4억원 - 시, 군비 5.6억원
시 설 농 가	단 기	경 영 비 (유류구입비)	224	-	224	-	65%이차보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이차보전비(1차년 14.6억원, 2·3차년 각 7.3억원) 지원
	중 장 기	유류 절감형 가 온 재 배 시 설 사 업	100	50	30	20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쌀 생산 최우수 특별지원 국비 25억원 - 도비 7.5억원, 시·군비 17.5억원 기금 융자 30억원지원

자료 : 충남도 농정국

담을 안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영생산비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비해 농산물 출하가격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설의 10%가량은 파종을 포기하는 형편에 이르렀고 상당수의 농가들이 사채를 빌려서 겨울용 유류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유류 미확보 농가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과 함께 시설농가의 자금차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a당 2백2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5%, 1년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융자해 주고 있는데 농가의 경영조건에 따라 금액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유류값을 절약하기 위하여 채소·화훼·특작을 위한 시설농가의 유류절감형 가온재배 시설비로 사업비 1백억원을 투자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태양열 지중난방, Z-파이프 시설, 다중 커튼, 연탄보일러 등 시설 사업을 10a당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난방비 절감효과의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 기타 품목

쌀을 비롯한 기타 작물의 생산농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단기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주요 농산물과 사료, 농약 등 주요 영농자재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일일점검 하여 원활한 수급을 유지해 나가도록 한다.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단을 구성하여 무우, 배추, 고구마, 마늘, 양파, 참깨 등 15개 농산물과 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유류 등 5개 영농자재에 대한 수급관리를 해나가고 수급불균형을 틈타 매점매식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중장기적인 대응전략

가. 농업투융자사업의 합리적인 재조정

농업예산의 삭감에 대비,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림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경직성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 투융자 사업을 분야별 기능별로 재검토하고 투자 규모와 순위를 조정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농업투자재원을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적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는 정책금융 축소에 대응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농가에서는 농산물 수요감소 등에 대비, 수요감소로 타격이 예상되는 과일 및 고급 과채류 등에 대한 작목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별적 영농사업과 관련된 투자사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영주체의 판단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재조정한다. 농지 기반 조성, 농촌도로 확충,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농촌개발에 기여도가 큰 공공재적 농업투자 분야는 장기적인 외부경제 효과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비중을 높혀 나가도록 한다. 정부 보조금의 비율이 높으면 투자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융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자금대출은 수월하게 해주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한다.

나. 지역농업구조의 재편성

지역농업은 품목별로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변화해 왔는데 그동안 유류가격과 사료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시설원에 작물과 축산물에 성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들 작목은 유류값과 사료값이 상승하면서 성장의 잠재력이 크게 낮아지게 되고 있다. 특히 충남은 중부 농업권 역으로서 남부지방에 비하여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 재배조건이 불리하므로 유류난방 재배방식의 시설원에는 더 이상 수지맞는 성장작목으로 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값싼 대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형 영농기술을 개발하던가 자연열을 이용한 半축성 작부체계를 개발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지 않는 한 비교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계절별 재배품종의 변경, 작목의 다양화, 농업 자재비의 절감, 특화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으로 지역농업의 작부체계를 생산비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농업정보화 계획을 조기에 추진하여 농가가 농업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을 높혀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 농업인력 육성계획의 조정

충남의 농가인구가 해마다 5% 내외로 줄어들고 있고 50세 이상 고령농민이 4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10년 이내에 지역농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농정당국은 농업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농촌인력의 도시유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유능한 농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날 도시의 청장년층 실업자를 농촌에 정착시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력의 정예화를 통한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상업농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농업기술과 마케팅에 대한 장기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성공적인 영농을 할 수 있으므로 도시의 귀농인구가 단기간에 농촌에 정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귀농인에게 영농의 초기단계부터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기보다는 먼저 독농가나 영농조합에 일정기간동안 고용인으로 취직하게 한 후 귀농인의 영농적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라. 수출농업의 육성

IMF 외환위기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수출경쟁력은 고품질, 저가격으로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한편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해외 농산물 시장에서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기술, 정보, 유통면에서 한단계 높은 수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내 4,000여개의 작목반 중에서 수출 유망 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수출 농업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 작목반 조직의 선정기준은 ① 품질과 가격에서 해외시장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② 해외 바이어가 원하는 시기와 물량

을 정확히 공급할 수 있고, ③ 해외 거래선으로부터 수출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성과 신용을 쌓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수출 농산물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정보를 품목별로 품종, 생산량, 생산시기, 생산비용, 국내유통 가격 및 경로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표적시장과 소비계층을 발굴하여 해외 거점시장의 확보전략을 세운다.

수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업체와 연계하여 수출계약을 맺도록 하는데 품목별로 수출업체를 조사하여 신용도가 높고 수출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대행 신청을 받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이들 업체들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 보상, 수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무 부과,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납기지연, 품질저하, 가격협상, 수출클레임 발생, 수출대금의 미수 등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 조정역할을 하는 수출 농산물 지원센터를 농민, 학계, 수출업체,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수출보험료에 대한 요율의 일정비율을 도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초기에 해외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V. 결 언

그동안 추진된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맞이한 최근의 IMF 경제난은 지역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IMF 체제이후 겪는 외환위기와 고금리, 긴축재정으로 수입원료의 비중이 높은 농용자재의 가격인상 및 구입난,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업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지역농가는 현재 생산비의 급등과 수요침체라는 이중고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쟁력향상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 온 그간의 농정 방향은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농업구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농정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IMF 금융지원 이후 농업외부의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문제를 전망하고 지역농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충남의 농업은 단기적으로 축산농가와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긴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융자사업의 합리적인 조정, 지역농업 구조와 농업인력 운영의 재편성, 수출농업의 육성을 통하여 IMF 경제위기를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고 21세기에 대비한 농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도내 관련 기관,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방화·지방화 농정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 농민신문, 1997. 1. 14일자 보도내용
- 농정연구포럼, 농업투융자사업의 진단과 새로운
방향모색, 1997. 11.
- 충청남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MIMEO, 1997. 12. 23.
- _____, 농어촌발전 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
1997. 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년 농업전망과 정책과제,
MIMEO, 1998. 1. 19.
- _____, 신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
향, 1998. 2.